마신 유순영겁의 구원일체자 마에트레야

일명 미륵보살

구원의 사유상과 함깨 빛나는 절대영도의 힘을 가진 포활한 여신

칼키가 모든 전쟁을 끝낸 후 싯다르타의 뒤를 이어 지구의 중생들을 이끌어줄 후계자들의 리더이다

외모는 약간 연등을 닮은 구조로

잠들어있는 육신: 현재에 현계한 마에트레야는 사실상 정신적으로는 깨어있지만 육체 및 본심은 아직까지 잠자는 중이다 그런 진화를 통하여 다양한 자동효과가 발주한다

구원의 육신: 현계한 마에트레야는 본래 미래에 나타날 육신이 아닌 일종의 성신이자 외장으로 비슈누 같은 신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를 해제하고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부처로서의 모습을 드러낼수있다

56억의 손바닥: 성속성데미지로 크게 관통 및 엄벌을 가한다

미륵보살의 손바닥이 손오공을 박살낸 것 처럼 자신이 상처를 입어도 더욱 거대해지는 전승이 있듯이 이능력까지 병행하면 위력은 강해지나 마에트레야 본인은 성격상